

◎ 신기한 이야기들

69명의 자녀를 출산한 부인

제정 러시아 시대 『모스크바』에 살았던 농부 『피요틀·마시렛』의 처(1816~1872)는 자그마치 69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이 부인은 27회에 걸쳐, 16쌍의 쌍둥이와 7쌍의 셋쌍둥이, 4쌍의 넷쌍둥이등을 낳았다. 이 부인이 낳은 자녀들은 거의 다 살아서 어른이 되었다. 당시의 황제 『알렉산더 2세』는 『마시렛』부인을 궁정에까지 초청, 경사를 축하해 주었다.

888명의子女를 가진 아버지

모로코의 「피에 굼주린 황제」라고 알려진 『무레이·이스마일』은 도합 888명의 자녀를 가졌었다. 그중에서 사내아이는 548명, 제집아이는 340명이었다나. 물론 이 황제는 일부다처국(一夫多妻國)의 황제이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자녀를 가질수 있는 행운을 누렸던것.

일부다처제가 아닌 나라 『캐나다』의 『윌슨·켓틀』대위(1860~1963)는 2사람의 처에게서 11명의 자녀와, 65명의 손자, 201명의 증손자, 305명



사진은 세계 제일의 다복한 아버지가 된 『켓틀』대위

의 혈손(玄孫)을 보아 그가 102세의 장수를 누리고 사망하기까지 도합 582명의 무성한 자손을 세상에 남겼다.

389일간 임신한 부인

영국의 『사레이』주 『워킹』 산원(産院)에서 어떤 이름을 밝힐수 없는 25세의 부인은 얘기를 낳았는데, 이 얘기는 무려 389일간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랐다는 것. 몸 무게도 3,572그램이나 되었다니, 이 얘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두살을 먹은 셈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얘기는 사산(死産)이었다.

<보통 부인의 평균 임신기간은 273일>

옆가슴이 맞붙은 『삼』兄弟

1811년 5월 11일, 태국의 『마쿠롱』에서 출생한 『삼』형제(兄: 잔·퐁카, 弟: 엔·퐁카)는 가슴의 연골부(軟骨部)가 서로 붙은 쌍둥이었다. 1843년 4월, 삼 형제는 결혼을 했는데 신부



는 『사라』와 『아테레이드·이에쓰』라는 이름을 가진 한 쌍둥이의 자매(姉妹)였다고. 결혼후 형은 10명, 동생은 12명의 자녀를 얻었다. 그리고 이들 형제는 1874년 1월 17일, 62세가 되었을때, 3시간의 차이를 두고 죽었다.

두 형제가 한 몸에 붙은 쌍둥이의 얘기는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록상 불분명한 것들이어서 신빙성이 희박하다.

1550년경 영국의 『켄트·벤티덴』에서 『메아리』와 『아리샤』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나, 혈통(血統)이 밝혀지지 않았다.

또 영국의 『사섹슨·부라이튼』에서 1908년 2월 5일 출생한 『테이지』와 『바이올렛·힐튼』쌍둥이의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1969년 1월

5일까지 살다가 63세를 일기(一期)로 미국의 『노스·카르나이나』주 『살롯데』에서 사망했다. 이들은 엉덩이가 맞붙은 쌍둥이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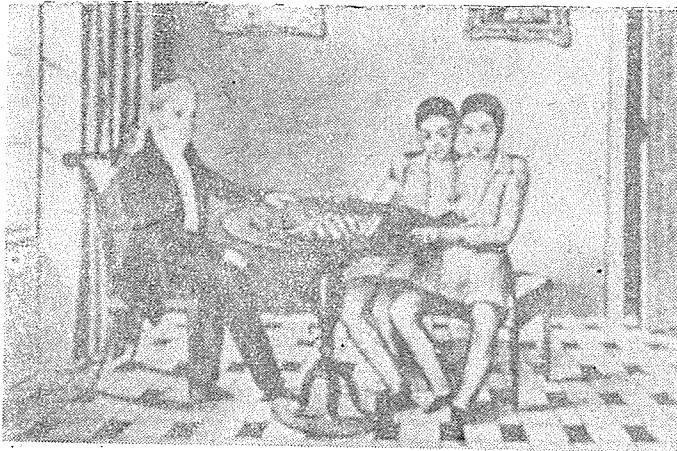
105세를 산 쌍둥이

|| || || || || || ||

쌍둥이도 보통사람처럼 장수 할 수 있을가. 통계에 보면, 100세까지 생존하는 가능성은 10억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1858년 12월 20일, 뉴웨이에서 출생한 『모데랏도』형제는 형은 105세, 동생은 101세까지 살았다.

불가리아의 『소피아』자매는 지난 1966년 9월 27일, 104세의 생일을 마지했었다는데, 그뒤의 생존여부를 알 수 없다.

만약 아직도 살고 있다면 112세의 장수를 누리고 있을 것이다.



사진은 유명한 『살』형제. 두 사람의 형제는 앉아도 같이 앉아야 했으며, 서도 같이 서야 했다. 서른 뜻이 달라서는 하루 한시간도 살 수가 없었다.